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경과

조남호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 1. 서 론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2년에 사전 편찬을 시작하여 1999년 11월 말에 3권으로 된 『표준국어대사전』을 완간하였다.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이 사전은 본문만 7,128면이며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옛말, 방언 등 모두 50만 단어를 수록하였다. 이 사전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어문 규정을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적용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어를 대폭 수록하여 민족의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기존 사전의 부족점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8년에 걸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편찬 과정은 크게 준비(1992년~1993년), 집필(1994년~1995년), 교열(1996년~1998년 7월), 교정(1998년 8월~1999년)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이 순서에 따라 편찬 경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준비 단계를 지나 집필이 한창 진행되던 1994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작업에 대해

서는 이미 『새국어생활』 5권 1호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와 집필 두 단계를 하나로 묶어 1994년까지의 진척 상황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로 1995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전 편찬 작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 2. 준비 및 집필

첫 해인 1992년에 사전 편찬 작업은 총괄 분과, 표제어 분과, 어휘 조사·수집 분과, 어원·옛말·이두 및 방언 분과, 북한어·해외 동포 언어 분과, 뜻풀이·용례 분과, 전문어 분과 등 7개 분과를 구성하여 모든 연구원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총괄 분과를 제외한 각 분과에는 외부 인사 3~4명을 포함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전 편찬의 제반 문제와 편찬 계획 전반에 관해 검토하였다. 3월에는 4명의 편수원을 채용하여 원내에서 사전 편찬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사전 편찬실을 설치하였다. 4월에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가 당면직 3명, 임명직 7명으로 구성되어 처음으로 열렸는데<sup>1)</sup> 사전 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14차례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총괄 분과에서는 그동안 편찬된 주요 사전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기존 사전을 단어별로 카드에 오려 붙이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분과에서는 기존 사전 분석, 사업 방향 설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존 사전을 오려 붙이는 일은 처음에는 12종의 사전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종적으로 남북한의 대표적인 사전 6종으로 국한하여 작업하였다. 이 일은 1994년 5월에 가서야 종결되었다. 오려 붙인 카드는 하나하나 검토를 하여 표제어 선정이나 집필 의뢰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입력하여 기존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또한 집필을 의뢰할 때 카드를 복사하여 집필자에게 제공하여 집필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사전의 처리 태도를 확인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1998년에 63만 장에 이르는 카드를 모두

1) 후에 임명직 2명이 추가되어 모두 9명이 되었다.

스캐너로 읽어 파일로 만들어 두었으므로 앞으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내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들은 1992년부터 용역으로 원외의 도움을 받았다. 사전 편찬 기간 중에 총 17건의 용역이 진행되었다. 1992년의 경우는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대상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국어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가 용역으로 나갔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용역 결과물은 용례를 확보하기 위한 입력 문헌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다. 두 번째 용역 결과물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hdb.exe와 hgrep.exe는 후에 두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 편찬 기간 내내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hdb.exe는 기존 사전의 정보를 추출하는 데도 이용되었지만 교정 단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추출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데도 많이 이용되었다. hgrep.exe는 용례를 검색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1993년에 들어와서는 연구원 일부가 편찬 업무를 전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괄, 표제어, 뜻풀이, 전산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제어 분과에서는 기존 사전을 오려 붙이는 일을 계속하면서 카드를 검토하여 표제어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뜻풀이 분과에서는 뜻풀이 집필 지침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험적으로 300개의 단어를 집필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전산 분과에서는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전을 입력하고, 용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을 입력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994년에 들어오면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편찬 예산이 대폭 늘었다. 원래의 계획은 매년 10억 원씩 10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었으나 1992년과 1993년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1993년에 사전 편찬 기간을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즉 1997년에 발간하는 사업으로 단축하면서 1994년 예산부터 대폭 늘었다.<sup>2)</sup>

2) 표에 제시한 예산은 예산 각목 명세서에 나오는 예산으로 실제 집행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

(단위 : 천원)

연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	172,012	172,489	1,081,130	1,906,390	2,292,866	1,347,192	1,168,086	1,168,086

1994년 3월 집필 지침이 완성되어 4월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집필 방법은 여러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원외 사람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먼저 준비가 된 일반어부터 집필 의뢰를 시작하였다. 집필할 항목, 해당 항목에 대한 기존 사전 카드(복사물), 해당 항목에 대한 용례 목록을 집필자에게 제공하였다. 초기에 잠깐 원고 용지를 이용하여 집필을 하였으나 곧바로 전산 원고 입력 지침을 마련하여 파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집필은 1995년까지 집중적으로 계속되었는데 모든 집필이 완료된 것은 1997년에 들어서였다. 집필 현황을 아래에 간략하게 표로 제시한다<sup>3)</sup>.

분야	집필자 수	기간	집필 항목 수
일반어	108	1994년 4월~1996년 9월	238,896
전문어	58	1995년 2월~1996년 6월	224,176
북한어	25	1996년 1월~1996년 12월	32,810
방언	12	1996년 1월~1996년 12월	68,445
옛말	8	1996년 8월~1997년 5월	13,042
문법형태	2	1995년 12월~1996년 12월	
미등재어	10	1996년 11월~1997년 7월	11,500

집필이 계속되면서 집필자가 부족하여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갔다. 또한 한 분야의 집필이 끝난 사람에게 다른 분야의 집필을

3) 집필이 시작된 시기는 최초로 의뢰가 나간 때로, 집필이 완료된 시기는 집필된 원고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문법 형태의 집필 항목 수는 확인이 되지 않아 비워 두었다.

의뢰하기도 하였다.

전문어는 전문 영역별로 나누어 집필을 의뢰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원내에서 집필을 하기도 하였다. 영역별로 항목 수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항목 수가 많은 영역은 여러 명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집필을 할 때는 원내에서 분류하여 정리한 집필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 기존 사전 카드(복사물), 그리고 해당 영역 전문어 사전을 제공하였다.

전문어의 집필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전문어는 전문 영역을 잘 알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역의 전공자에게 의뢰하는 방안과 일반어처럼 국어국문학 전공자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국어국문학 전공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국어사전에서는 국어다운 문장을 기술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해당 영역에서 그런 사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과 해당 영역 전공자가 집필하게 되면 국어사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어렵게 집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신 집필이 끝난 원고를 감수를 받기로 하였다.

북한어, 방언, 옛말, 문법 형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하였다. 방언은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평안, 함경, 황해도 지역을 나누어 각 지역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다른 분야는 항목 선정은 주로 원내에서 담당하였지만 방언의 경우는 원내에서 선정한 항목을 제공하면서 집필자가 적극 표제어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북한어의 수는 70,000여 개, 방언의 수는 20,000여 개이다. 북한어의 집필된 단어 수가 실제로 수록된 단어 수보다 적은 것은 북한어이면서 전문어인 단어들은 전문어 분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이다. 방언은 동일한 단어라 해도 지역이 다르면 각각 집필을 했기 때문에 집필된 단어 수보다 수록된 단어 수가 적다.

북한어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았다. 연구원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집필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편찬 체제, 사전에 대한 태도 등이 달라 뜻풀이 등에서 『조선말대사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면서 『조선말대사전』의 수용

범위가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북한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실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용례이다. 집필 중에는 집필자가 용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나중에 인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용임을 밝히면서 『조선말대사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원내에서 이미 확보한 북한 문헌에서 찾은 용례만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교정 중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한 『조선말대사전』의 용례를 모두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어에 대한 직관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북한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말대사전』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미등재어는 기존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원내에서 확보한 신어, 집필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용례집과 출판된 어휘집에서 찾은 단어가 대상이 되었다. 일차로 확보된 단어들을 원내에서 검토하여 사전에 수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은 제외하고 집필을 의뢰하였으며, 집필자가 뜻을 모르는 단어는 집필 중에 제외되었다.

위의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속담과 관용구의 집필도 원외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속담, 관용구의 집필은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였다. 집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집필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속담과 관용구는 집필자의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1994년부터 집필에 필요한 용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교수들에게 문헌 입력을 의뢰하였다. 전문 입력 업체에 의뢰할 것도 검토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각 대학의 교수들을 선택한 것이다. 국어사 문헌, 고전문학 작품 문헌, 소설, 수필, 신문, 잡지, 특수 사전, 전문 영역 교재 등 다양한 문헌의 입력을 의뢰하였다. 문헌 입력 용역은 1995년에 이어 199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국어사 문헌과 고전문학 작품 문헌은 1997년까지 진행되었다. 문헌이 먼저 입력되고 이를 이용하여 집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편찬 일정상 함께 진행이 되었다. 교열 단계에서야 입력한 문헌 전체를 색인하여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말에 편찬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간을 2년 연장하여 1999년에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또한 1995년 9월 29일에 열린 사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가칭으로 ‘종합국어대사전’이라 불리던 사전 명칭을 ‘표준국어대사전’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표 등록을 추진하였는데 1999년에 가서야 등록이 되었다.

민간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출판을 하기 위하여 출판사를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1995년부터 출판사 선정에 착수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협조를 받아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두산동아와 1996년 9월 20일에 계약을 맺었다.

1995년부터는 단위 과제라 하여 새 사전에 수록될 각종 사전 정보를 분야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표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미등재어(수집, 선정, 집필), 북한어, 문법 정보(문법 형태, 활용·품사 정보), 발음 정보, 어원 정보, 속담·관용구(선정, 집필), 전문어(영역 조정, 고유명사 포함), 삽화의 10개 연구 과제가 있었으며, 1996년에는 여기에 방언, 고어, 이두가 더 추가되었다. 앞서 집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일반어와 전문어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단위 과제로 표제어 선정, 집필 의뢰, 접수, 교열이 수행되었다. 외래어 단위 과제에서는 외래어 목록을 검토하여 외국어로 보이는 단어들은 삭제하였으며, 외래어의 원적이 되는 언어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언어 전공자에게 원어 표기 및 표제어 표기를 감수를 받았다. 이두 단위 과제는 이두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 이두를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기존 사전의 목록을 정리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단위 과제는 사전편찬실에 소속된 연구원, 편수원, 조사원이 일반어, 전문어 접수 및 교열을 병행하면서 추진하였는데 과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합 교열 이전까지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단위 과제 중에서 교열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했던 분야는 담당자들이 계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 3. 교 열

1996년에는 집필 원고의 접수와 교열을 병행하다가 199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열에 들어갔다. 교열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분리 교열이라 하여 집필자가 출력하여 제출한 원고에 곧바로 교열을 보는 단계가 있었고, 통합 교열이라 하여 분리 교열이 끝난 모든 원고를 표제어별로 모아 순서대로 교열을 보는 단계가 있었다.

분리 교열은 원내와 원외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어의 경우는 모두 원내에서 교열을 하였으며, 전문어는 원외의 교열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내와 원외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북한어, 옛말, 문법 형태는 집필자들끼리 원고를 바꾸어 보면서 진행하였으며, 방언은 교열을 하지 않았다.

원외에서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사전 편찬 작업 중에는 수시로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고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할 일이 잦는데 원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불충실하게 되기도 한다. 때로는 작업자의 성실성이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편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충고를 들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집필은 물론 교열까지도 원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인력과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탓도 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일을 기꺼이 하면서 사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사전편찬실에서 확보한 공간도 협소하여 인력을 확보해도 배치할 공간이 없었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여러 난점이 있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 이유로 계속 원외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원외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반어만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교열을 보았다.

전문어는 집필이 끝나고 교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영역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감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잘 안 쓰는 말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낡은 개념으로만 풀이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

다. 감수를 의뢰한 영역에서도 쓰는 단어들이기는 하지만 인접한 다른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영역을 고치는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 쓰이는 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영역은 추가로 표제어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1996년 2월부터 감수를 의뢰하기 시작하여 7차에 걸쳐 영역별로 감수를 추진하였다. 감수가 끝나고 돌아오면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열하였다. 감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인명, 지명, 고유 명사 영역과 감수자의 사정으로 감수가 되지 않은 교통 영역을 제외한 49개 영역에서 1996년 12월까지 121명에게 199,981 항목을 감수를 받았다. 항목이 많은 분야는 여러 명에게 감수를 의뢰했기 때문에 영역 수에 비해 감수자가 많은 것이다. 감수가 끝난 이후에도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담당자들이 감수자에게 문의를 하였다.

1997년 6월부터는 통합 교열에 착수하였다. 통합 교열은 3인 1조가 되어 모두 10개 조로 구성이 되었으며 먼저 조사원이 본 원고를 편수원이 다시 보고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sup>4)</sup>. 이때부터는 원고를 가나다순으로 하나하나 검토하는 교열조와 교열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조로 구분하였다. 지원조는 표제어 정리, 북한어·전문어·속담·관용구 검토, 지침 정비 등 원고를 교열하면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열자는 교열을 보면서 여러 단어에 관련되거나 표제어의 추가·삭제에 관한 사항이면 메모를 남겼으며, 지원조의 담당자는 자신의 담당에 속하는 메모를 처리하였다. 표제어 삭제 등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수십 명의 교열자에게 맡기면 일관성 있는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통합 교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은 1993년 9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원외에 용

4) 조사원은 주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대졸자들이며, 편수원은 주로 국어학 석사 수료 이상의 사람들이다. 조사원은 애초에는 편수 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명칭에 대한 불만이 많아 조사원으로 바꾸었다.

역을 주어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 시스템은 서버에 자료를 두고 랜(LAN)으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집필 중에는 외부 접속, 집필자가 보유한 컴퓨터의 성능 등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다가 분리 교열이 끝난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면서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전 편찬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시스템에서 원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리 교열이 끝나고 막상 원고가 단어별로 취합되자 집필이 되지 않은 단어가 많다는 점이 새로 드러났다. 집필이 어려운 단어를 집필자가 남겨 두었는데 제대로 인계가 되지 않아 집필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였고, 동의어, 비표준어 등 단순 어휘라 해서 그동안 집필을 미루었던 단어들도 다수 있었다. 또한 일반어이면서 전문어이거나 여러 전문 영역에 걸치는 단어처럼 다의적인 뜻이 있는 단어인데 하나의 뜻만 집필된 경우도 있었다. 분야를 나누어 집필하여 발생한 문제였다. 중간에 인력의 교체가 잦아 관리상에 허점이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집필이 안 된 단어는 교열자가 집필을 하였다.

통합 교열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받음처럼 단위 과제에서 정리해 두었던 정보가 담긴 원고와 분리 교열이 끝난 원고를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원조에서 표제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집필자가 남긴 주석을 참고하여 삭제할 표제어는 삭제하고 부표제어로 보낼 단어는 부표제어로 보내고 어깨번호를 조정하는 등 표제어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단어 하나씩 A4용지에 출력하여 교열자에게 배분했다. 그러면 교열자가 교열을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메모로 남길 것은 메모로 남겼다. 다시 지원조에서 원고를 넘겨 받아 담당자별로 메모를 처리하였고, 이렇게 하여 정리된 원고를 마지막으로 입력자가 입력을 하였다.

이 무렵부터는 '작업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편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든 작업자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지침이 정비되어 통합 교열에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침에 없는데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 담당자끼리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교열자들끼리 동일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기도 했다. 1주일에 한 번씩 담당 책

임자끼리 회의를 하여 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침과 관련된 것이든 작업 방식에 관한 것이든 새로 결정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모든 작업자에게 돌렸다. ‘편찬실 통신’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교정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편찬 작업과 관련된 수정된 지침이 나갔다. 교정 마지막 단계에서야 발견되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는 삽화 제작 작업도 진행되었다. 단위 과제 때부터 이미 삽화가 하나의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삽화를 제작할 목록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출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96년 11월 21일 두산동아와 삽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다. 먼저 연구원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출판사에 제공하였다. 밑그림은 연구원과 출판사가 협조하면서 확보하기로 하였다<sup>5)</sup>. 사진으로 할 것인가 그림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은 주로 출판사에 위임하였다. 여기까지 결정되면 출판사에서는 삽화자의 도움을 받거나 실물을 사진으로 찍어 납품하였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 중에서 감수가 필요한 것은 감수자를 선정하여 의뢰하고 그러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삽화는 원내에서 검토를 하였다. 검토를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삽화를 완성하였으며 9차 교정 직전에 일반 원고와 통합하였다. 삽화는 1997년부터 제작이 되는 대로 일정량씩 납품이 시작되었다.

삽화가 뜻풀이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울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는데 원칙에 충실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선 삽화를 제시할 목록을 선정하는 일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사전들에 보면 불필요한 곳에도 삽화를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다 보니 이미 작성된 목록에서도 상당수는 삽화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으며 정작 삽화가 들어가야 할 것이 목록에서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담당자가 따로 수집을 하고 교정자에게도 주의를 주어 목록을

5) 이 작업을 위해 연구원에서는 삽화 제작에 참고가 될 만한 도서들을 구입하여 도서 안에 나오는 그림과 사진만 따로 오려 카드에 붙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완하였다. 목록만 있다고 쉽게 제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밑그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밑그림을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삽화 제작자가 많지 않아 삽화 제작자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삽화는 가급적 전형적이면서 뜻풀이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삽화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감수를 받는 중에 삽화가 잘못 제작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꽃 박람회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감수자가 보고 이 꽃들은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여 대부분 쓰지 못할 것이 되고 말기도 했다. 때로는 삽화 제작자와 감수자가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감수자가 삽화가 잘못 제작되었다고 지적해도 제작자는 밑그림을 참조하여 제대로 그렸다고 수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삽화 제작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삽화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 소장 자료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삽화를 원고에 수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의어 중에서 뜻풀이가 있는 기본 표제어가 중간에 바뀌거나, 뜻풀이가 수정되어 삽화와 일치하지 않거나, 색이 맞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삽화를 바꾸거나 뜻풀이를 바꾸었다.

1997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정비 회의가 30회에 걸쳐 열려 사전 편찬 지침을 자세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문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어문 규정의 개정 때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현행 규정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은 최대한 사전에 반영하였다.

#### 4. 교 정

교열이 끝난 원고를 1998년 초부터 출판사에 넘기기 시작했다. 이미 출판사와 협의하여 연구원에서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 둔 원고를 파일로 받아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서 출판용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두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파일로 원고를 보냈으며, 출판사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하지는

않았다.

1999년에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르면 1998년 초부터 교정이 시작되어야 했다. 그런데 교열이 1998년 7월에 가서야 끝이 날 예정이어서 부득이 1차 교정을 원외에 맡겨야 했다. 출판 계약을 할 때 홀수 교정은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짝수 교정은 출판사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서 출판사에서는 교정에 들어가면서 보충할 외부의 인력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 이들 인력을 연구원에서 1차 교정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사전 원고에서는 각종 약물이 사용되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전 교정에 참여하게 되면 사전 교정에 일찍 익숙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어차피 원외에 맡길 일을 이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일정상 가능한 양만 원내에서 교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외에 교정을 의뢰하였다.

연구원이 본격적으로 교정을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3차 교정 때부터이다. 일부 끝나지 않은 1차 교정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때마침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문화재관리국이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사전편찬실이 공간이 약간 넓어지게 되어 이때부터는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모두 원내에서 작업을 하였다. 더는 원외에 일을 맡기면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팀장 1명과 팀원 9명으로 구성된 3개의 교정 팀을 구성하였으며 표제, 관련어, 교정 지원, 업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팀들을 구성하였다. 표제 팀에서는 어깨번호 확인 등 표제어 검토, 어문 규정에 관련된 표제어 점검, 발음 정보 확인, 원어(한자어, 외래어) 정보 확인, 문형 정보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관련어 팀에서는 관련 어휘, 참고 어휘를 비롯하여 다른 표제어와 관계를 맺는 모든 단어(~의 잘못, ~의 북한어, ~의 방언 등)<sup>6)</sup>의 짝을 확인하는 업무와 계열 어휘<sup>7)</sup>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6)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통틀어 ‘관련어’라고 하도록 하겠다.

7) ‘계열 어휘’는 뜻풀이 형식을 일치시켜야 하는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편찬 중에 임시로 붙인 명칭이다. 절기의 명칭처럼 하나의 상위어에 포함된 모든 하위어뿐만 아니라 뜻풀이 형식을 일치시켜야 하는 모든 부류를 포괄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교정 지원은 일부 교정을 보면서 세부 품사 확인, 어원 정보 확인, 용례 원문 대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업무 지원은 원고 관리, 입력 등을 담당하였다. 교정 지원 팀을 따로 둔 것은 팀장들의 업무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교정은 교정전 작업, 교정, 교정 후 작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교정전 작업은 표제어 검토, 한자 원어 확인, 문형 정보 정리, 용례 원문 대조, 계열 어휘 정리 등 별도로 진행되면서 교정 이전에 원고에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이었다. 교정전 작업이 끝나면 교정 팀의 팀원이 교정을 보고 다시 그 원고를 팀장이 검토하여 문제점을 수정하게 한 후 원고 관리자에게 넘겼다. 교정 후 작업에서는 교정자들이 작성한 메모를 담당자가 처리하고 관련어 팀에서 관련어를 처리하였다. 하나의 원고를 두고 여러 명, 때로 수십 명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교정에 사용하는 필기구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필기구의 색을 구분한 것은 이미 분리 교열 때부터 이용하던 방식이다. 출판사에서도 교정을 보다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정해진 색으로 표시하여 보냈으며 교정자나 담당자가 처리하였다. 교정자는 교정 중에 관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칠하여 관련어 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어 팀에서 일일이 관련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교정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 중의 하나는 유사한 단어가 동일한 형식으로 뜻풀이되도록 원고를 조정하는 일이었다. 동일한 형식으로 맞추어야 할 원고의 범위는 무척 넓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단어 수가 많은 것은 따로 담당자를 두었고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절기의 명칭은 계열 어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처리하였다. 따로 담당자를 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의성의태어이다. 의성의태어는 통합 교열 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의성의태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통합 교열이 자모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는 원고에서 짝을 찾아 확인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의성의태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쌍자모를 맡은 교열자는 교열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열자가 다르면 다르게 고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바로잡히지 않는 단어 쌍이 여전히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의성의태어의 뜻풀이를 일관성 있

게 하려면 따로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 그, 저’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집중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명사·부사 통용어,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감탄사, 보조동사, 접사, 조사, 어미도 일관성 있는 처리를 위해 담당자를 따로 두었다. 담당자들은 파일로 된 원고를 검색하여 현재 상태에서 표제어의 수록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원고 형식을 일치시키는 일까지 하였다. 사전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류별로 집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집필 때부터 있었고 부분적으로 시도되기도 했으나 부류별로 단어를 선정하는 일도 대규모 작업이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정 때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 검색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쉽게 표제어들을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3차 교정이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에 예상했던 일정보다 진행이 늦는 작업이 발생하여 작업 결과 반영이 5차 교정으로 미루어지기도 했다. 교정전 작업, 교정, 교정 후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 어느 하나가 늦어지면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되면 그대로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5차 교정에서는 용례 자료를 보완하여 교정자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연구원에서는 분리 교열에 들어갈 때 100만 어절 분량으로 1차 용례집을 제작한 바 있다. 통합 교열에 들어가면서는 소설 등 직접적으로 참고가 되는 문헌 입력 파일을 이용하여 색인 파일을 만들어 2차 용례라 하여 교열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2차 용례 작성 대상에서 빠진 문헌 입력 파일들로 별도의 색인 파일을 만들어 3차 용례라 하여 교열자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교정자들로부터 특정 작가의 용례가 지나치게 많이 인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주의하지 못한 중에 생긴 다소 부득이한 문제이기도 했다. 원고를 교열하다 보면 단어의 쓰임을 잘 보여주면서도 비표준어나 부적당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고 길어도 적당하여 인용하기에 좋은 용례를 인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그 조건을 갖춘 작가의 작품이 자주 인용된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교정지 한 면에서만 동일한 작가의 동일한 작품이 여러 차례 인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문헌을 확보하여 4차 용례로 쓸 색인 파일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인용이 잦거나 한 단어에서 중복 인용된 작가의 작품은 4차 용례 파일에서 새로운 용례를 찾아 교체하였다.

7차 교정부터는 띄어쓰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표제어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표제어를 확인하면서 띄어쓰기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9차 교정에서는 교정자와 별도로 원고를 읽어가면서 띄어쓰기만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팀을 따로 운영하였다. 교정자가 띄어쓰기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이 팀에서 먼저 띄어쓰기를 확인하여 교정자 한 쪽에 확인한 단어를 표시해 두도록 하였다. 그러면 교정자는 이미 표제어에서 확인한 단어는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7차 교정에서는 3차 교정, 5차 교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담당자들이 별도로 정리한 사항들이 원고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였다. 앞선 교정에서 담당자들이 교정지에 반영을 했는데 교정자의 실수로 잘못 고치면서, 또는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을 교정자가 알고 고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확인한 것이다. 확인이 끝난 곳에는 표시를 해 두어 교정자가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했다.

작업 담당자가 세분이 되고 확인할 사항이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였다. 한창 교정이 바쁠 때에는 원내에서만 100명 이상의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자리가 부족하여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력이 부족하여 사전 편찬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새로 투입하다 보니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잦았다. 또 업무가 세분되다 보니 전체적인 편찬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맡은 것만 처리하다가 담당자들끼리 처리를 달리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의성의태어 담당자가 관련되는 단어들을 형식을 맞추어 풀이를 했는데 문형 정보 담당자가 이들 단어의 문형을 다르게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일이 잦았다.

7차 교정부터는 바로 전 차수 교정 원고를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교정까지는 교정이 끝난 원고를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에도 반영하여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입력자들의 작업이 지체되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아예 출판사에서 교정 사항을 입력한 파일을 받아서 이를 변환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출판사에서 입력한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으로 개발하였다.

3차 교정, 5차 교정, 7차 교정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원래 삽화는 7차 교정에서 반영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9차 교정에서 반영이 되었다. 이때부터는 편집과 관련된 사항도 점검을 하였다. 출판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한 줄에 한 글자만 있다든지 자간이 맞지 않는다든지 삽화가 잘못 배치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사전의 틀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추가한 분량만큼 다른 내용으로 보충하거나 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진행되다 보니 교정 단계에서도 거의 교열 수준의 원고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출판사에서 10차 교정이 끝나고 연구원에서 교료를 놓으면서도 11차 교정을 본다는 생각으로 교료를 하였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교정자가 교정을 한 번 더 보기도 하였다.

1999년 8월부터는 마지막으로 교정쇄 교정을 하였다. 출판사에서 출판할 사전과 똑같이 출력한 교정쇄를 보면서 혹시 인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색이 완전히 나오게 됨에 따라 교정자에게서 삽화에 나오는 색과 뜻풀이에 제시된 색이 맞지 않는다든지 삽화의 색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든지,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색과 안 맞는다든지 하는 지적이 나와 마지막 단계에서 삽화를 삭제하거나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로 삽화 담당자가 검토해 오기는 했지만 마지막에서야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만약 삽화가 삭제되면 그만큼 다른 내용으로 원고를 채워야 했다.

이 과정을 거쳐 1999년 10월 9일 비로소 1권이 나오게 되었으며, 중하권이 11월 말에 나오게 되었다.

## 5. 향후 과제

사전 편찬을 완료하기는 했지만 사전 관련 사업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연구원에서 향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미 책으로 간행된 사전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디롬으로 전자 사전을 만드는 일이고, 최근의 추세를 따르면 인터넷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원에서 사전을 펴냈을 때 향후 계획으로 자주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다. 전자 사전 편찬에 대해서는 편찬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편찬 원칙을 정하거나 수정할 때도 나중에 전자 사전을 만들 것을 항상 고려하였다. 때로 편집상의 문제로 출판사의 담당자와 장시간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전자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는 것과 보기에 좋게 편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 용례 끝 기호를 들 수 있다. 나중에 검색을 위해서는 용례 끝 기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서는 용례 끝 기호를 두기를 희망했으나 출판사에서는 보기에 좋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그래서 기호는 그대로 두되 출판할 때는 기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편찬이 완료된 후 곧바로 전자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했는데 컴퓨터 코드에 수용되지 않은 글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

둘째, 사전 편찬 중에 확보한 자료와 편찬 경험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일은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데 연구원에서 사전을 만든 것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원에서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편찬 지침의 공개이다. 초기에 불과 수십 쪽에 불과하던 지침은 최종적으로 천 쪽이 넘는다. 여기에는 편찬 중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처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이 공개되면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좋은 사전 편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사전 편찬 원칙을 세울 때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작업 중에서도 비로소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주 편찬 원칙을 수정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연구원에서 경험한 내용이 공개

되면 앞으로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침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훨씬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편찬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백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을 만들기 위해 참고로 만들었던 각종 자료들도 정리가 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헌 입력 파일의 경우는 이미 홈페이지에 일부가 공개된 상태이다. 사전 편찬자는 사전의 성격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이용함으로써 사전 편찬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일반인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전 자체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전 편찬 작업은 책이 발간되자마자 곧바로 수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전이 워낙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을 수 없는 탓도 있지만 말이 계속 바뀌므로 지속적으로 말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